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9월 21일(주일)
제직회

9월 26(금) - 28일(주일)
약속의 나라 성경학교

9월 28일(주일)
교육위원회
일광절약제 시작

10월 3(토) - 4일(토)
꿈의 나라 성경학교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예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안현수 2부/최영두 3부/이성민 4부/나하영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창조의 아버지 다 함 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봉헌 및 1부/ 권정호 장로 2부/ 박미정 권사 3부/ 노희영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롬 1:15-17 사 회 자
- 찬 양 2부: 나의 갈길 주가 인도하시네 시온찬양대
3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당신이 리더입니다 12 남우택 목사
복음을 알게하라
- 찬 양 오직 믿음으로 다 함 께
주기도문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이 진 희
대표기도
- 찬 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수 1:1-9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1] 김진영 목사
새로운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민봉식 장로 2부/ 손보영 장로 3부/ 김인합 권사 4부/ 정형진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

한우리 베이직
하이델베르크 2

말씀: 롬 6:3-4

제목: 물로 시작되는 새생명

기도: 오피성 집사 (다음 주 기도: 김성국 집사)

설교: 이요한 목사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예배 시작전, 소지하신 휴대폰을 반드시
무음 처리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3. 하반기 입교/세례식이 12월 21일(주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일독 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교회사무실
• 성경일독: 자율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한우리교회 유튜브 채널 HanouriTV
• 문의: 안현수 목사 (021 0863 7987)
4. 목상교재 '복있는 사람 9/10월호'를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

수요예배 한우리베이지 하이델베르크 주제설교

	주 제
1주	이 지식을 아는 유익 (59-64문)
2주	그 신뢰의 수단(1) 세례 (65-74문)
3주	그 신뢰의 수단(2) 성찬 (75-82문)
4주	그 신뢰의 수단(3)설교와 권징 (83-85문)
5주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 (86-91문)
6주	십계명 1부: 하나님 사랑 (92-103문) 십계명 2부: 이웃 사랑 (104-113문)
7주	기도란? (114-119문)
8주	주기도문 1부 (120-124문) 주기도문 2부 (125-129문)

교육부서

- 약속의 나라 성경학교: 9.26(금) - 28(주일)
- 비전주니어: 국내 아웃리치
9.27(토)-28일(주일) 로토루아, 해밀턴 지역
- 비전시니어(Y11-Y13): 홀리데이즈
MISSION: I'MPOSSIBLE, 9.20(토)-21(주일)
- 비전시니어(Y11-Y13): 국내 아웃리치
10.2(목)-4일(토) 타우랑가, 해밀턴 지역
- 교육위원회: 9.28(주일) 1:30pm 비전홀



비전 시니어 교사 모집

비전 시니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와
헌신으로 성실히 섬겨 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격: 제자반 수료 이상
담당자: 오훈 021-0285-9399

전도부

오늘 거리전도는 타카푸나 스타벅스 건너편에서
3시에 시작합니다.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9	14	캄보디아바라크 / 로뎀
	21	예멘 / 주일여자 제자반
	28	천국나그네 / 제주한라

교구별 연합예배

교 구	일 정	장 소
3 교구	9.19(금) 7:00pm	본당

교우동정

- 결혼
박근국, 김라희 성도의 차남 박치훈 군과
Jennifer Le 양이 13일에 혼인하였습니다.
기도해주시며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세상 흔들리고)

1. 세상이 흔들리고 - 사람들 온변하 - 여도 나는 주를 섬 - 기리
 2. 믿음 흔들리고 - 사람들 주를 떠 - 나도 나는 주를 섬 - 기리

주님의 사랑은 - 영원히 변하지 -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해
 주님의나라는 - 영원히 쇠하지 -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해

오직 믿음으로 - 믿음으로 내가 살리 라
 오직 믿음으로 - 믿음으로 내가 살리 라 - -

오직 의인은 -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라
 오직 의인은 -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라 - -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 데 오	1 로DEM	김승기	21575899	온 유	37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38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39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0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드레스덴	김지석	0210302829		41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 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42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3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4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9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5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46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 랑	11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47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2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48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3 바나바	김중국	21654688	49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4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0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5 야베스	김성민	212595119	51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 윳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2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3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4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5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56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빛	21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57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가나	이광일	212179303	58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59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0 LA	정두련	211365151	
	25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61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26 서울, 빛의 마을	전은호	2041616256	62 이레	이의섭	210497628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3 산토	조기동	2102370987	
우 리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4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9 가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5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6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월드 모로코	윤수경	272008546	67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68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33 벤엘	신규식	21417756	69 모스크	노희영	274308322	
참 빛	34 섬나 호치민	나종엽	21386202	70 카이로스 발리	이경호	272341008	
	35 잇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1 에벤에셀	이민수	21810072	
	36 통가	송정순	2102562581	72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73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74 그리스도의 향기 Lexell	심정임	2102386602	
교 구	초 원	교역자	3 교구	우 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성도는 이 세상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영적리더,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사는 동안 이 신분,정체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1.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 성도를 어떤 존재로 칭했는지를 뵈전2장9절을 마음으로 읽으면서 서로 격려하며 확신하세요.

2. 복음이 무엇인지 메시지중심으로 함께 정리해보세요.

3. 복음을 아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수 있는지 메시지 중심으로 나누어 보세요.

4. 이번 메시지를 통해 내가 깨달은 바(교훈, 할 일,...)한가지씩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튀르키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2024년 개신교인 대상 증오범죄 급증

2024년 튀르키예 전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전년도보다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이 29일 보도했다. 튀르키예 개신교 교회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개신교 신자와 교회들은 구두·서면 모욕과 물리적 공격, 행정적 차별 등 심각한 위협을 겪었다. 12월 31일 책메뢰이 구세교회 협회 건물은 괴한의 총격을 받았고, 가해자는 “무슬림 청년들을 세뇌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교도들은 지옥에 쏠려갈 것”이라고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8일, 9명의 외국인 기독교인이 제기한 체류 제한 항소를 기각했으며, 언론 공개로 이들은 “선교사”이자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혔다. 소셜미디어에는 사형 요구 글까지 등장했다. 튀르키예에는 214개 개신교 교회가 있으나 152개만 법적 지위를 갖고 나머지는 세금·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며, 교회 건물 부족과 임대 거부 등으로 예배처 확보가 어렵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한국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낙태 약물 도입, 생명 존중 가치 훼손 부를 것”

70개 단체가 연합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3일,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낙태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움직임을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여연은 “낙태 약물 도입은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를 비판했다. 태여연은 낙태 약물이 도입된 국가들에서 여성들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건강을 잃거나 태아와 함께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사회에 혼란을 주는 ‘임신중지’라는 용어 대신,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의 본질을 드러내는 ‘낙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태아의 생명권을 배제하는 약물 낙태 도입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낙태약 도입을 위해 출산을 위협한 것으로 몰아가는 왜곡된 프레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튀르키예]** 교회를 박해하는 튀르키예를 꾸짖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한국]** 정치적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계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